

# 삼락농정 핵심지표 · 사업 발표

### 전북도-삼락농정위, 올 하반기부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범 추진 등

전북도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하는 '삼락농정(三樂農政)'의 실현을 위한 목표를 제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삼락농정위원회(위원장 김일제 행정부지사, 김석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는 '삼락농정 2020' 목표 및 핵심지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삼락농정 2020' 목표 및 핵심지표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에 걸쳐 6개월간 142명의 삼락농정위원회와 분과가 30회의 분과회의, 5회의 운영협의회를 거쳐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고민하고 논의에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발표한 32개 핵심지표는 농민정책 분야와 농촌활력 분야, 축산, 수산, 산림, 농업 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각각 2~3개의 지표를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도 자체사업의 직불성 예산비율 35%로 확대, 통합 마케팅조직 매출액 3,100억원 목표 달성, 농촌마을 체험·관광객수를 100만명으로 확대,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12,000ha로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율 99%로 제고 등이 있다.

또한 '삼락농정 6대 핵심사업'으로 '보람찾는 농민'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일손부족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여성농

업인 생생 바꾸쳐 지원 사업과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제값받는 농업' 분야는 최저 생산비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부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범 추진하고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축사, 양식장 등에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람찾는 농촌' 분야는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체험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통합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과 농촌활력 창출을 위해

주민 주도형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농업인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삼락농정 포럼에서는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 전복살 산업 육성, 지역먹거체 체계 구축 등 3개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농민과 도민이 함께 공감하는 삼락농정의 내발적 실천동력을 마련해 나가갈 계획이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2020 삼락농정 목표를 수립한 김석준 삼락농정위원장을 비롯한 삼락농정위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해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의 힘,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 덕진구, 공한지 주차장 정비

덕진구(구청장 정태현)에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한지 주차장 일제정비는 겨울내 쌓인 낙엽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주차장 안내표시, 주차선 등도 함께 정비해 시민들에게 깔끔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덕진구에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28개소를 조성해 차량 31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홍관일 경제교통과장은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속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다시는 위안부 같은 아픔이 없어야... 30일 전주시 중화산동 근영여중 무궁화홀에서 열린 영화 '귀향' 토론회에서 일본 요코하마 중학교 교사(오른쪽)였던 스즈키 히토시 씨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30일 전주시 중화산동 근영여중 무궁화홀에서 열린 영화 '귀향' 토론회에서 일본 요코하마 중학교 교사(오른쪽)였던 스즈키 히토시 씨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전주 한옥마을 전 구간 '금연'

### 7월 1일부터 단속 예정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전 구간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보건소(김경숙 소장)는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주한옥마을 내 골목길을 포함한 전

구간(사유지 제외)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옥마을 금연구역 지정은 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시설을 보호하고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간접흡연 걱정 없는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한옥마을 주민과 사업주, 종사자

등 8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64명(82%)이 골목길을 포함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는 한옥마을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 한옥마을 은행로와 태조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영재기자

##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30대 항소심 징역 10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30일 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1일 저녁 9시30분께 전주교도소 기결수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 A(20)씨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 1주일 동안 매일 1차례씩 A씨를 추행하는 등 2명의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기자

## 전주시,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

### 김승수 시장, 현장 방문

전주시가 봄철 산사태 취약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의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0일 전북동절개지와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동절개지는 대형 암반이 이격돼 산사태 우려가 높아 인근 주민이 위협에 노출돼 있어,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이전에 긴급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현장행정에 나선 김 시장은 "조속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난에 방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을 둘러보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

전주시는 31일부터 출생신고 할 때 신청서 한 장이면 출산관련 각종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통합신청서만 제출하면 자녀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신청 등 출산 관련 수혜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출산관련 원스톱서비스 제도는 전국 공통 서비스인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감면이며, 전주시 자체 서비스로는 ▲셋째

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돌봄 출생 축하금 지원 ▲다자녀 우대증 발급 등이 있다.

신청은 출생아 부모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춰 신청어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 알려준다. 단,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김영재기자

## 정부, 공명선거 대국민담화 “불법·탈법행위 엄단”

정부가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31일)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0일 공동 담화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이기는 하나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불법선거 운동이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 담화문의 핵심이다.

두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 직무를 소홀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감찰과 경철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살포·후색선전·여론조작 등 불법 집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탈법 선거 운동에 대해 엄격히 감시해 주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편차 2배의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구 수가 19대 때보다 7개 늘어난 데다가 5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또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새간 재외선거인 투표와 함께 거소·사전·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일반법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후보자들은 31일 0시부터 공식 선거장에 돌입, 선거일 전날인 내달 12일 자정까지 13일동안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성주기자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 부족함이 있다면 귀히에게 날개를 달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달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달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겸임교수  
 • 면접지도 권위자 호장  
 • 한국유변인협회 권법 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5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의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 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유변인협회, (사)한국유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